

심은경, “처음 연기했을때 감정 다시 느껴”

“영화 ‘겉기왕’ 시나리오 단숨에 읽고 고민 없이 출연 결정”

‘씨녀’(736만명), ‘광해, 왕이 된 남자’(1232만명), ‘수상한 그녀’(865만명)가 연달아 거대한 성공을 거두자 배우 심은경(22)은 ‘최연소 흥행퀀’으로 불렸다. 뛰어난 연기력은 물론 한국영화계에서 점차 멸종 위기로 내몰리고 있는 대형 여배우급 재능의 탄생이라는 것 또한 그에게 쏟아진 찬사(賞詞)이었다.

심은경이 슬럼프에 빠진 건 이때였다. 인기에 취한 범도 하고 자신감에 빠진 만한 상황이지만, 그는 천천히 자신의 연기를 복귀했다. “진심은 없고 계산된 연기만 하는 것 같았어요.” 2010년 이후 심은경이 출연한 영화·드라마는 무려 10편, 무언가 변화가 필요한 것 같은데 그는 좀처럼 해답을 찾지 못했다. 해답을 찾지 못하자 슬럼프가 찾아왔다. “무조건 잘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연기에 지쳐가고 있을 때, 만난 작품이 ‘겉기왕’(감독 백승화)이다. 이 작품은 청춘영화이지만, 이 장르의 통상적인 궤도를 역주행한다. ‘겉기왕’의 청춘은 나를 허약하게 불태워 꿈을 향해 전력질주하지 않고 말하지 않는다. 이젠 ‘왜’ 꼭 그렇게 살아야 하냐고 되묻는 청춘이다. ‘천천히 가도 괜찮다’고 남들의 기준에 꼭 맞출 필요는 없다고 말하는 영화의 메시지에 심은경은 말 그대로 공감했다.

시나리오를 단숨에 읽고 고민 없이 출연을 결정했다.

“겉기왕을 하면서 처음 연기했을 때의 감정을 다시 느껴요. 그게 초사이었죠. 연기를 꽤 오래 하다 보니(2004년 데뷔)

습관처럼, 일처럼 했던 것 같아요. 이번 작품은 예전처럼 즐기면서 했습니다. 관객은 어떻게 볼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스스로 만족스럽고 특별히 애정이 가는 작품입니다.”

심은경이 연기한 ‘민복’은 특별히 하고 싶은 것도 되고 싫은 것도 없는 평범한 고등학교생이다. 특이한 게 있다면 심한 말미로 차에타지 못한다는 것. 민복은 두 시간 거리인 학교를 매일 걸어 다녀야 한다. “꿈을 향한 열정을 강조하는 담임 선생님은 그에게 재능을 찾아주려 하고, 민복이 걸기를 잘한다는 것에 착안, 육상부에 들어가 경보 선수가 될 것을 권유한다.

경보 선수라는 목표가 생긴 민복에게 주변 사람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이런 것이다. “꿈은 끝이 없는 거란다. 다른 사람들 다 목숨 걸고 하고 있어” “모든 건 다 정신력 문제야” 등. 민복은 이런 말들에 휩쓸려 더 빠르게 걸기 위해 훈련에 매진한다.

“저도 그런 말들을 들었어요. 누군가에게 제 고민을 털어놓으면 할 수 있어” 걱정하지만 지금처럼만 하면 돼! 밥만 먹으면 못할 게 없어라고 하는 거죠. 제가 들어봤던 말들이에요. 이런 대사들도 그렇고, 민복이가 마치 저 같았어요. 그래서 최대한 제 평소 모습으로 연기하려고 했습니다.”

심은경이 슬럼프를 지나고, ‘겉기왕’을 촬영하면서 한 일은 내려놓음이다.

나를 내려놓고 최대한 연기하는 인물에 다가가는 것, 그저 ‘연기’를 하려는 게 아



겉기왕에서 심은경이 연기한 ‘민복’은 특별히 하고 싶은 것도 되고 싫은 것도 없는 평범한 고등학교생이다. 특이한 게 있다면 심한 말미로 차에타지 못한다는 것. 민복은 두 시간 거리인 학교를 매일 걸어 다녀야 한다.

나라 자연스럽게 그 인물 속으로 몰입해 들어가는 일이다. “예전에는 잘해 보이고 싶었어요. 그렇게 하지 못하며 스스로 지는 것 같고 굴복하는 것 같았어요. 이제는 여유롭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쉬운 일은 아니겠죠. 하지만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연기도 더 잘 된다는 걸 지금은 느껴요.”

그의 말처럼 심은경은 ‘겉기왕’에서 편

해 보인다. 영화의 모든 장면에 등장하다 시피 하는 그는 주연 배우라는 부담감을 짊어지고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심은경처럼 가볍게 화면 속을 오간다. 코미디 연기의 과장스러움은 보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캐릭터의 마음을 생각하게 됐어요. 그 인물이 나라면 어떻게 생각하는 거죠. 그냥 저답게 연기하고 싶어요.”

/뉴스

현대자동차 정몽구배 한국양궁대회, 내일 결선

우승상금 1억원을 두고 한국 양궁 고수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대한양궁협회는 내일까지 잠실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과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현대자동차 정몽구배 한국양궁대회 2016’을 개최한다.

총상금은 약 4억5000만원으로 남녀 우승자 각각 1억원이다. 역대 최대 규모다.

준우승은 5000만원, 3위는 2500만원, 4위는 1500만원, 5~8위는 각각 800만 원의 상금을 받는다. 상금의 25%는 소속팀 지도자에게 경기력 향상연구비로 지급된다.

2016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에서 양궁에 걸린 금메달 4개를 싹쓸이한 구본찬(현대제철), 김우진(청주시청), 이승윤(코오롱·이상 남자), 장혜진(LH), 기보배(광주시청), 최미선(광주여대·이상 여자) 등이 모두 출전한다.

김기찬 양궁협회 부회장은 “올림픽에서의 우수한 성적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고의 경기력을 지닌 우리 선수들이 마음껏 기량을 펼치고 그에 어울리는 대우를 받는 대회가 부족하다는 사실에 아쉬움을 지니고 있었다”며 “정몽구 명예회장의 양궁 사랑을 기리고, 선수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고자 이번 대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민근기자

U-19 축구대표팀, 사우디에 패해 8강 좌절

한국 19세 이하(U-19) 축구대표팀이 2승1패의 성적을 거두고 조별리그에서 탈락했다.

인익수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20일(한국시간) 바레인 리파의 바레인 국립경기장에서 열린 사우디아라비아와의 2016 아시아축구연맹(AFC) U-19 챔피언십 조별리그 A조 최종전에서 1-2로 역전패했다.

조별리그에서 2연승 후, 첫 패를 당했지만 토너먼트 진출에 실패했다. 우려했던 최악의 시나리오였다.

같은 시간 바레인인 태국을 3-2로 꺾으면서 한국, 바레인 사우디는 모두 2승1패(승점 6)를 기록했다.

승점이 같을 경우, 세 팀간 경기에서의 골득실·다득점 순으로 순위를 가린다. 세 팀 모두 골득실은 0으로 같았지만 다득점에서 한국이 밀렸다. 바레인과 사우디는 +4, 한국은 +3이다. 이번 대회는 내년 한국에서 열리는 20세 이하(U-20) 월드컵 출전권이 걸린 대회다. 상위 네 팀이 출전권을 갖는다. 한국은 조별리그에서 탈락했지만 개최국 자격으로 내년 월드컵에 자동 출전한다.

안 감독은 “어려운 상황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한 선수들에게 고맙다. 이번 대회 역시 내년 U-20 월드컵을 위한 과정의 일부”라고 말했다.

/김민근기자

SK·넥센 ‘사령탑 공식’ ... 외국인이나, 내부 발탁이나

SK 관계자, “선수들과 원활한 소통 할 수 있는 외국인 감독을 알아보고 있다”

정규시즌이 끝난 국내 프로야구에 감독 교체 칼바람이 불고 있다.

시즌이 끝나면서 사령탑이 경질된 SK 와이번스와 넥센 히어로즈가 새로운 감독을 찾고 있다.

SK는 올해 정규리그에서 6위로 밀려나 가을 야구에 실패했다.

책임을 물어 김용희 감독을 가차없이 내쳤다.

김 감독이 팀을 떠나면서 그와 함께 호흡을 맞췄던 1, 2군 투수 코치도 출몰이 집을 썼다.

김상진 투수코치는 삼성 라이온즈로

떠났다.

김원형 투수 코치도 쌍방울 시절 한술밥을 먹은 조원우 감독이 있는 롯데 자이언츠로 이적했다.

SK는 국내 감독보다는 외국인 감독 선임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9일 오전 류준열 대표와 민경삼 단장은 미국으로 출국했다.

미국에서 추천을 받은 3~4명의 외국인 후보 감독과 면담을 치른 후 오는 28일 귀국할 예정이다.

SK 관계자는 “올 시즌 세밀한 부분이 잘 안됐다. 이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

고 선수들과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는 스타일의 외국인 감독을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동시에 국내에서도 후보를 물색하고 있다.

SK의 마무리 캠프는 오는 11월2일부터 시작된다. 그 전에 새 감독을 선임할 가능성이 높다.

플레이오프 진출이 좌절된 넥센도 바쁘기는 마찬가지다.

넥센 영경영 감독은 지난 17일 LG전을 끝마친 후 기자회견장에서 지진 사퇴 의사를 전격 밝혔다.

/김민근기자

드라마, K-POP 통합 시상식 ‘Asia Artist Awards’

블락비·빅스 등 가수 부문 1차 라인업 공개

국내 최초의 드라마, K-POP 통합 시상식 2016 Asia Artist Awards(조직위원장 장운호, 이하 ‘AAA’)가 블락비, B.A.P, 빅스, AOA 등 가수 부문 1차 라인업을 공개했다.

블락비는 2016년 다섯 번째 미니앨범 ‘Blooming Period’를 발매, ‘몇 년 후에’와 ‘TOY’로 기존의 색깔을 탈피, 두 곡 모두 큰 사랑을 받았으며 새로운 음악적인 시도였다는 호평을 받았다. 빅스는 다섯 번째 싱글 앨범 ‘Zelus(젤로스)’와 여섯 번째 싱글앨범 ‘Hads(하데스)’로 각종 음악 프로그램에서 1위를 차지, ‘Hads’는 미국 빌보드 차트 순위에도 오르며 글로벌 그룹으로 인정받았다.

가수 부문 1차 라인업만으로도 남다른 스키임을 자랑하는 ‘AAA’는 대중들이 생각하는 기존의 시상식에서 더 나아가 스타일리쉬하고 독창적인 유일무이 시상식의 탄생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뉴스

위대한 체·인·지의 시작

태권도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태권도 교육, 체험, 수련, 문화교류의 장
<http://www.tkdwon.kr>




태권도원 - 우리 세대에 우리가 만든 세계문화유산

올림픽 단일종목으로는 최초로 국제경기, 체험, 수련, 교육, 연구, 교류 등 태권도에 관련된 모든 것이 가능한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문공간입니다.

또한 전 세계인이 태권도를 통해 한국을 느끼고 한국의 일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시대의 살아있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Taekwondowon
THE GREAT CHANGE **태권도원**

전북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482 / 063) 320-0114